

# 여수시, 중·고생을 위한 '최강 입시멘토 토크콘서트' 성료

### 여수문화홀에서 대학생 멘토의 공부법 및 생생한 경험 전달 "유익한 정보·현실설 있는 조언...대학생활 꿈 키우는 시간"

여수시가 지난 26일 여수문화홀에서 지역 중·고생을 위한 '최강 입시멘토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중·고생과 학부모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출신 대학생 멘토(이규민, 김재영, 남해원)로부터 효과적인 공부법과 생생한 학교생활 경험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입시전문가이자 여수시의회 의원

인 김철민 강사가 '변화하는 대학입시 정책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여수용전중 3)은 "대입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와 함께 선배 멘토들의 현실성 있는 조언들이 좋았다. 공부를 진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대학생활에 대해 꿈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대입 제도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생들에게 이번 행사가 좋은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용하고 빠른 진학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이번 행사 외에도 대입 진학상담, 면접 준비, 입시 설명회, 학생부 및 공부법 특강 등 다양한 진학프로그램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061-659-5216)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현근 기자



## 광양시, 2023 매화축제 총감독 공모

### 12월 9일까지 축제 업그레이드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 모집

광양시가 2023 매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총감독 공개모집에 나섰다. 시는 내년 3월, 4년 만에 개최될 광양매화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한편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품격 있고 실험적인 축제에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광양매화축제 총감독은 광양매화축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운영, 전문인력 운영 및 행사구성방안 수립·운영, 대외홍보방안 마련 등 축제를 총괄·연출한다. 응모자격은 꽃 관련 축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로 「지방공무원법」 제21조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모집기간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며, 12월 7-9일(3일간) 방문접수를 받는다. 면접 일시와 장소 등은 별도 통보할 방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gwangyang.go.kr) 공고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광양매화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총감독을 선임할 것이다"며, "성공적 축제를 위한 열정과 참신한 기획력을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 고흥군,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

고흥군은 지난 26일 동강면 용유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H5N1)가 검출됨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26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AI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 조치사항, 상황관리 등 방역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인근 농장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고, 27일에는 방역현장을 찾아 조치사항 이행상황을 확인 점검했다. 조치사항으로 ▲ 해당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실시 ▲ 발생농장과 반경 10km 내 방역지

역 설정 및 이동제한 ▲ 발생농가 및 500m 이내 모든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조치(26,065마리) ▲ 발생 가금농장 통제초소 설치 등을 추진했고, 살처분 투입인력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로 살처분 투입 전 감염 예방 교육 및 점조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주변농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소독을 실시했고, 역학대상 7농가에 대해 시료채취 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순천 문화재 야행, 겨울의 초입에서 새롭게 만나다

### 12월 2일부터 3일간 개최

순천시는 12월 2일부터 3일간 순천 문화재야행을 문화의 거리 및 매산길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 야행은 쌀쌀하게 변한 날씨에 맞춰 겨울에 어울릴 만한 다양한 콘텐츠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군밤굽기와 같은 체험이 대표적이다. 매산길에 뜨거운 숯불과 그릴을 설치하고 맛있는 밤으로 유명한 송광면에서 공수된 알밤을 직접 구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군밤굽기 체험은 투어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스탬프투어나 해설투어 참여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가을에 계획했던 프로그램들 또한 여전히다. 한국사 최대성 강사와 개구무민 김세아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가 문화의거리 한옥골방에서 열린다. 재미와 입담으로 유명한 이들의 입을 통



해 순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해볼 만하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투어도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 해설투어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참

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열린 세계문화유산 축전과 연계해 순천의 문화유산들을 재미있게 조명한 전시 프로그램도 행사의 깊이를 더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 보성 문화예술 한자리에... '제2회 보성종합예술제' 성료

보성군은 지난 2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보성종합예술제가 풍성한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예총 보성지회(지회장 서정미) 주관으로 열린 제2회 보성종합예술제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인 판소리 합창공연, 읍면 마을이야기 대회, 지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였다.

보성문인협회, 보성미술협회, 연예예술인연합회보성지회 등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해 종합예술제의 격조를 높였다. 특히, 지역 명장들에게 특훈을 받은 보성군민 100명이 함께 부른 '100인 판소리 합창공연 사월가'는 서편제의 본향이자 소리의 고장 보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특색있는 무대로 호평을 받았다. 보성=김복순 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